

傳統樹立과 變異過程을 통해서 본
史傳散文의 變遷史 概論
— 先秦에서 唐代까지 —

趙 殷 尙*

<目次>

- | | |
|----------------------------|-----------------|
| I. 들어가는 글 | III. 史傳散文의 變異過程 |
| II. 史傳散文의 傳統樹立 | 1. 班固의 《漢書》 |
| 1. 史傳散文의 萌芽 | 2. 魏晉南北朝의 史傳 |
| 2. 《史記》의 出現과
史傳散文의 傳統樹立 | 3. 唐代的 史傳 |
| | IV. 나오는 글 |

I. 들어가는 글

중국문학을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가르칠(敎學) 것인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그간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특히 요즘과 같이 실용학문이 대우 받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중국문학을 연구함에 있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장르와 각 왕조(시대)별 연구이다. 그래서 시가연구, 산문연구, 소설연구, 희곡연구 등 수많은 영역이 개척되었고, 여기에 더 나아가 先秦文學, 漢代文學, 魏晉南北朝文學, 唐代文學 등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세분화된 연구는 종합적으로 융화되고 수용되어 중국문학사 전체의 큰 줄기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으로 작용한다. 일례로 중국산문만 보더라도 더욱 그렇다. 중국산문은 초기에 史傳散文과

* 명지대학교 강사

哲理散文이라는 두 줄기에서 발생하여 漢代와 魏晉南北朝, 唐代를 거치면서 駢文 그리고 古文 등으로 진화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융합과 수용이라는 變異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變異(variation)”란 생물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 뜻은 같은 종의 생물 개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리킨다. 변이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고난 형질과 환경이다. 타고난 형질의 영향을 받아 유전변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발생된 것을 환경변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문학사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詩經》에서 수립된 중국시가의 전통이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요인(환경) 등의 영향을 받아 樂府詩와 5, 7언 古詩를 거쳐 마침내 율시와 절구로 발전하였으며, “詩言志”의 전통 또한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다시 생물학적 변이과정에 대비시키면, 《詩經》에서 수립된 “詩言志” 전통의 변화는 유전변이와 유사하며, 詩體의 변화는 환경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생물학에서는 돌연변이라는 현상이 가끔 발생하지만, 중국문학사에서는 이러한 돌연변이 현상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문학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단어는 어쩌면 전통수립과 변이과정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하에, 필자는 중국산문사에 있어서 한 동안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웠던 사전산문을 대상으로 전통의 수립과 변이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산문의 한 흐름을 이해하고자 한다. 사전산문은 중국최초의 문학적 산문 중의 하나이자 후대산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산문체 문장이기 때문에 중국산문의 전통수립과 변이과정을 이해하는데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시간과 편폭상의 제약으로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일단 先秦에서 唐代까지의 사전산문, 특히 史書에 실린 인물전기로 제한한다.¹⁾

1) 실질적으로 사전산문은 唐代에 이르러 변화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범위를 이처럼 제한해도 무방할 것이다.

II. 史傳散文의 傳統樹立

1. 史傳散文의 萌芽

일반적으로 중국의 사전산문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漢代 司馬遷이 지은 《史記》의 本紀, 世家, 列傳 등 인물전기를 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마천 이전에 사전산문의 성격을 지닌 작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先秦 시기 《尙書》, 《春秋》, 《左傳》, 《國語》, 《戰國策》 등 史書를 통해 각 인물의 언행을 묘사한 문구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들 사서가 비록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에 불과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인물 묘사는 《사기》를 대표로 하는 사전산문의 출현에 기초가 된 것은 사실이다. 이들 사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단편적인 역사사건을 서술함과 동시에 인물들의 언행과 성격을 묘사하였다. 예를 들어, 《국어》와 《전국책》은 춘추 전국시대 각 나라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記言體 문장인데, 이들은 각 인물의 언행과 성격을 집중적으로 묘사하여 사전산문의 형성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 가운데 《전국책》에 묘사된 각국의 책사들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전국책》의 <蘇秦始將橫說>에는 蘇秦의 유세활동(游說活動)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소진은 連橫說을 가지고 진나라 惠王을 설득하려 했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자 가족들의 냉대를 받았다. 하지만 소진은 이와 같은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심지어 그는 졸음이 밀려오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공부하였다. 결국 그는 燕나라 조왕을 설득하여 재상이 되었고 그의 이상을 실천에 옮겼다.²⁾ 비록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소진의 결연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그 외에, <鄒忌諷齊王納諫>, <馮諼客孟嘗君>, <魯仲連義不帝秦>, <觸讐說趙太后>, <唐且劫秦王> 등도 이러한 인물 묘사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성격

2) 《戰國策》卷三(台北: 里仁書局, 民國79年9月版), p.85.

을 유효적절하게 표현하였다. 다음으로는 세부묘사 표현기법을 사용해 인물의 개성을 표현한 점이다. 이러한 기법은 《좌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기법이 소설과 너무나 흡사하여 소설필법이라고 까지 운운한다. 예를 들어, 《좌전》成公十六年에 “楚子登巢車以望晉軍”이란 한 소절이 있는데, 錢鍾書 선생은 이를 두고 “완전한 소설필법(純乎小說筆法)”³⁾이라고 하였고, 成公十一年에는 “聲伯之母”이란 한 소절이 있는데, 林紓 선생은 이를 두고 “사소한 일을 하나하나 서술하니 소설에 가깝다.(一枝枝節節敘之, 便近小說.)”⁴⁾라고 하였다. 이러한 표현기법의 장점은 인물의 성격을 아주 생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사서는 “喻教(혹은 教化)”의식에 입각하여 전형적인 인물을 선택함으로써 인물평가의 판단기준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상서》, 《춘추》, 《좌전》, 《국어》 등 사서는 권선징악적인 교화의식을 반영하여 윤리적 색채가 농후한 사전산문의 전통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이들 사서는 인물들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기는 하나 그들의 전체적인 주제가 인물에 있지 않고 역사 사건에 있고, 또한 인물들의 생평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사서를 사전산문의 맹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史記》의 출현과 史傳散文의 傳統樹立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사전산문은 한대 사마천에 이르러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사기》는 총 130편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表” 10편과 “書” 8편을 제외한 역대 제왕들의 사적을 기록한 “本紀” 12편, 제후들의 기록을 수록한 “世家” 30편,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묘사한 “列傳” 70편(<太史公自序>포함) 등은 모두 사전산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3) 《管錐編》第一冊(香港: 中華書局, 1979年), p.210.

4) 《左孟莊騷精華錄》, 郭丹<史傳文學與中國古代小說>, 《明清小說研究》, 1997年 4期, p.83.

이들 사전산문은 역사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기》를 사전산문의 표본이라고 한다.

인물묘사 방면에서 《사기》가 갖는 문학적인 특색을 설명하자면 대략 다섯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는 역사적인 중요 인물뿐만 아니라 사회를 대표할 만한 인물을 선정해 入傳했다는 것이다. 《左傳》과 《戰國策》 등 사서는 기본적으로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만을 선별하여 입전하였지만, 《사기》는 제왕, 제후, 황친국척, 문무대신 등 역사인물 뿐만 아니라 학자, 평민, 상인, 부녀자, 협객, 의사, 점쟁이, 방사, 광대 그리고 소수민족과 농민봉기의 수령 등 사회적으로 대표성을 떨만한 중하층 인물들을 위해서도 입전하였다. 예를 들어, 솔직하고 호탕한 인물로 項羽를 선택하였고, 교활하고 무리한 인물로 劉邦을 선택하였으며, 잔인하고 질투에 능한 인물로 呂后를, 정직하고 고고한 인물로 屈原을, 酷吏의 전형적인 인물로 杜周와 張湯을, 협객의 전형적인 인물로 郭解와 朱家를, 자객의 전형적인 인물로 聶政과 荊軻를, 아부에 능한 간신의 전형적인 인물로 鄧通과 李延年을, 익살꾼의 대표인물로 淳于髡와 優孟을, 예의바른 관료의 모델로 石備를, 아첨에 능한 인물로 叔孫通과 公孫弘을, 강직한 관료의 전형적인 인물로 張釋之와 汲黯을, 훌륭한 장수로 廉頗와 韓信을, 용맹한 인물로 樊噲를, 권모술수에 능한 인물로 張良을 각각 선택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사마천은 漢武帝에 의해 무고하게 살해된 곽해와 주가 등 협객을 위해서도 입전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통치자의 입장에서 이들 두 협객을 본다면 분명히 부도덕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비교적 통치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한 班固는 《漢書·游俠傳》에서 “도덕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류에 빠져 방종한다.(不入於道德, 苟放縱於末流.)”라고 하였으며, 심지어 “필부의 사소함으로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다하니 그 죄를 모두 용납할 수 없다.(以匹夫之細, 窮生殺之權, 其罪已不容於諸矣.)”⁵⁾라고 까지 말하며 이들을 비판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사마천의 《사기》

5) 《漢書·游俠傳》(台北: 鼎文書局, 民國68年2月二版), p.3699.

가 봉건사회 하에서 “强者”와 “好人”들을 위해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弱者”와 “惡者”를 위해서도 입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기》가 일개 통치자의 선전물도 아니고 계급사회의 산물도 아닌 모든 사람들(强者, 弱者, 惡人, 好人 등)의 인물전기라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각종 인물 묘사 기법을 활용하여 전형적인 인물의 형상을 그렸다는 것이다. 《사기》에서 활용한 인물묘사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1) 그 하나는 세부묘사 표현기법을 활용해 인물의 형상을 그린 것이다. 《좌전》등 사서는 한 사건이나 작은 이야기를 인물묘사라는 기법을 활용해 인물의 형상을 그렸는데, 《사기》또한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보면, <項羽本紀>중에서 사마천은 전쟁에서 참패해 슬피 노래 부르는 項羽의 비분강개함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항왕의 군대가 해하에 주둔하였으나 병력은 부족하고 식량은 다하였는데 한군과 제후의 군대가 여러 겹 포위하였다. 밤에 한군이 사면에서 모두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항왕이 곧 크게 놀라 말하길 “한이 모두 초나라를 점령하였는가. 어찌 초나라 사람이 이리 많은가”하였다. 항왕이 곧 밤에 일어나 장막 안에서 술을 마시니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우였다. 항상 총애하여 따르게 하였다. 준마 이름이 추였는데 항상 그것을 타고 다녔다. 이에 항왕이 슬프게 노래하면서 비분강개하여 스스로 시를 지어 말하길 “힘은 산을 뺏고 기운은 세상을 덮는데, 때가 이롭지 못하며 추가 나가지 않네, 추가 나가지 않으니 어찌할 수 있는가. 우야! 우야! 너를 어찌하면 좋은가.” 노래를 여러 번 부르니 미인이 화답하였다. 항왕이 눈물을 흘리니 좌우 모두 울고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였다.(項王軍壁垓下, 兵少食盡, 漢軍及諸侯兵圍之數重. 夜聞漢軍四面皆楚歌, 項王乃大驚曰: “漢皆已得楚乎? 是何楚人之多也!” 項王則夜起, 飲帳中. 有美人名虞, 常幸從; 駿馬名騶, 常騎之. 於是項王乃悲歌愴慨, 自爲詩曰: “力拔山兮氣蓋世, 時不利兮騶不逝. 騶不逝兮可奈何, 虞兮虞兮奈若何!” 歌數闋, 美人和之. 項王泣數行下, 左右皆泣, 莫能仰視.)⁶⁾

6) 瀧川龜太郎(瀧川資言)著, 《史記會注考證》卷七(台北: 天工書局, 1993年版. 이하 《史記》라고 함). 최근 중국에서 주석본 《史記箋證》(총 9책)이 2004년

이 문장에서 사마천은 작은 한 소절을 이용해 전쟁 패배 후 실의에 빠진 항우의 내적세계를 묘사함으로써 그가 전장에서 용맹함을 과시한 일개 장수이기 이전에 슬픔의 감정을 토로할 줄 아는 한 인간이었음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그 외에, <陳涉世家>는 陳涉이 머슴살이를 살면서 겪는 슬픔을 묘사하였고, <留侯世家>는 張良이 下邳에 숨어 지낼 때 다리 위의 노인을 위해 신발을 신겨주는 장면을 상세히 묘사했으며, <陳丞相世家>는 陳平이 마을 사람들에게 고기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묘사하였고, <李斯列傳>은 李斯가 창고에 들어가 쥐를 보고 탄식하는 모습을 그렸고, <孫子吳起列傳>은 吳起가 아내를 살해하고 장군을 구하는 장면과 병사를 위해 등장을 활는 장면을 묘사했고, <萬石張敖列傳>은 石建이 황제에게 상주문을 올리며 “馬”자를 잘 못 기재하여 두려움에 떠는 모습과 石慶이 채찍으로 말을 조심스럽게 세는 모습을 묘사했고, <酷吏列傳>은 張湯이 어린 시절 고기를 훔쳐 먹던 쥐를 잡아 심판하던 모습을 그렸다. 이들 모두 세 부묘사의 좋은 예이다.

(2) 그 다음으로 대비법을 적절히 활용해 인물의 성격과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사마천은 특히 인물의 성격과 형상을 강조하기 위해서로 다른 인물을 선택하여 대비시킴으로서 傳主(인물전기의 주인공)의 성격과 형상을 좀 더 강력하게 부각시켰다. 예컨대, <魏公子列傳>중에 魏王의 아둔함과 심지가 깊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 魏公子를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켰으며, <荊軻列傳>중에 용감하고 의리가 있는 荊軻와 나약하고 무능한 鞠武, 秦舞陽 등 인물의 대비 또한 아주 분명하였다. 이처럼 같은 문장 안에서의 대비 이외에, 한 편의 문장과 다른 한편의 문장을 대비한 것도 있다. <李將軍列傳>과 <衛將軍驃騎列傳>은 아주 좋은 예이다.

<李將軍列傳>: “이광은 청렴하여 상을 받으면 항상 그의 부하들에게

12월 출판되었으나, 필자가 아직 이 책을 구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가장 좋은 저본으로 알려진 《史記會注考證》을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나누어주었고, 음식은 병졸들과 똑 같은 것을 먹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40여 년 동안 2,000석의 관직에 있었지만, 집에는 여분의 재산이 없었고, 시중일관 집안의 재산에 대해 말하는 법도 없었다. ……병사를 이끌고 행군하던 중 식수와 식량이 떨어졌을 경우, 물을 보면 병졸들이 물을 다 마신 뒤가 아니면 물 가까이 가지도 않았으며, 병졸들이 다 먹고 난 뒤가 아니면 먹지 않았다.”(廣廉, 得賞賜輒分其麾下, 飲食士共之. 終廣之身, 爲二千石四十餘年, 家無餘財, 終不言家產事……廣之將兵, 乏絕之處, 見水, 士卒不盡飲, 廣不近水; 士卒不盡食, 廣不嘗食.)⁷⁾

<衛將軍驃騎列傳>: “(표기장군은) 어려서부터 시중이 되어 신분이 존귀해졌기에 병사들을 살 필줄 몰랐다. 그가 종군할 때, 천자는 태관에게 수십 승의 수레를 팔려 보내주었는데, 후에 그가 귀환했을 때, 수레에서는 기장과 고기가 남아 있어 그것들을 모두 버렸다. 반면, 병사들 중엔 굶주린 자가 나왔다. 그가 요새 밖에 있을 때, 사졸들 중엔 식량이 모자라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자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표기장군은 땅에 줄을 긋고, 답국을 했다. 표기장군의 진영에선 이와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少而侍中, 貴, 不省土. 其從軍, 天子爲遣太官齋數十乘, 既還, 重軍餘棄梁肉, 而士有飢者. 其在寒外, 卒乏糧, 或不能自振, 而驃騎尙穿城踏鞠, 事多此類.)⁸⁾

부하를 대하는 두 장군의 태도가 문장 간의 대비를 통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 외에, <酷吏列傳>과 <循吏列傳>, <項羽本紀>와 <高祖本紀>, <蕭相國世家>와 <淮陰侯列傳> 등 문장 또한 효과적으로 대비법을 활용한 문장들이다.

(3) 마지막으로 인물의 심리묘사를 통해 전주의 내적 세계와 외적 활동을 집중 부각시켰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인물의 심리묘사를 충분히 발휘하였는데, 그 방법 또한 아주 많다. 대표적인 예로, <李斯列傳>을 들 수 있다. <李斯列傳>은 독백과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상태를 묘사하였

7) 《史記》卷一百七.

8) 《史記》卷十一.

는데, 예를 들면 그가 창고에 들어가 쥐를 보고 탄식하며 “사람의 현명함과 무능함은 쥐와 같아서 자신의 처한 환경을 봐야한다!(人之賢不肖譬如鼠矣, 在所自處耳!)”⁹⁾라고 말했는데, 이는 獨白을 이용한 것이다. 독백과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상태를 묘사한 것 외에 사마천은 인물들의 노래를 통해 전주의 당시상황과 내적 세계를 효과적으로 부각시켰는데, 馮諼이 칼을 휘두르며 부르던 노래, 項羽의 <垓下歌>, 荊軻의 <易水歌>, 劉邦의 <大風歌>, 趙王劉友의 <趙王歌>, 朱虛侯劉章의 <耕田歌>, 漢武帝의 <瓠子詩> 등이 그렇다. 이러한 심리묘사는 인물의 현재 상황과 내적 세계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세 번째, 개성이 풍부한 구어와 말투를 통해 사전산문의 고사성을 극대화 시켰다. 《사기》의 인물묘사와 사건묘사는 기본적으로 문언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간혹 개성이 풍부한 구어와 말투를 통해 마치 인물들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예컨대, <張丞相列傳>에는 周昌의 이러한 구어체 대화가 있다. “신은 말 할 수 없지만 그~그~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폐하께서 태자를 폐위시키려 하지만 신은 그~그~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臣口不能言, 然臣期期知其不可! 陛下雖欲廢太子, 臣期期不奉詔!)”¹⁰⁾ 여기서 “期期”는 일종의 구어로서 말더듬는 주창의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그래서 季鎮淮 선생은 “《사기》의 언어는 문언이지 백화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어에 가까운 것으로 구어의 기초 하에 만들어진 일종의 문언이다.(《史記》的語言誠然是“文言”, 不是“白話”, 但他是接近口語的, 是在口語的基礎上產生的一種“文言”。)”¹¹⁾라고 까지 말하였다.

《사기》의 구어체 사용에 대해, 金代와 元代를 걸친 문인 王若虛는 《사기》의 인물전기 가운데 자어가 중복된 문구들을 수집하여 사마천이

9) 《史記》卷八十七.

10) 《史記》卷九十六.

11) 季鎮淮, <司馬遷是怎麼寫歷史人物的傳記的: 從“實錄”到典型化>, 《中國古典散文研究論文集》(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59年), p.74.

인물묘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구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였다. 그는 《淳南遺老集》卷十五에서,

제후군들은 모두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無不人人”은 뜻이 중복되었음.(〈項羽紀〉云, 諸侯軍無不人人懍恐, “無不人人”字意重.)¹²⁾

한왕이 한신을 대장으로 삼으려 할 때, “여러 장군들은 각자 자신이 대장이 될 것으로 여겨 모두 기뻐하였다.” 各自는 중복되었음. “한신이 대장에 임명되자, 모든 군이 다 놀랐다.” 이는 “拜, 一軍皆驚”이라 해야 한다. (〈淮陰侯傳〉云, 漢王欲拜信爲大將, “諸將皆喜, 人人各自以爲得大將.” 多“各自”字. “至拜大將乃韓信也, 一軍皆驚.” 此當云, “拜, 一軍皆驚.”)¹³⁾

만약 그의 주장에 따라 문장을 바꾼다면, “諸侯無不人人懍恐”은 “諸侯無不懍恐” 혹은 “諸侯人人懍恐”내지 “諸侯懍恐”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둘째구의 “人人各自以爲得大將”은 “人人以爲得大將”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문구가 비교적 간결하지만 이와 동시에 언어의 생동감은 사라질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구어에 가까운 언어의 특색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王若虛의 《淳南遺老集》卷十五에서 열거한 예들을 통해 사마천의 문언은 사실상 구어의 기초 하에서 생성된 것이며 문구 중의 반복된 단어는 구어의 습관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물 묘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사마천의 구어 사용은 일종의 자각적인 노력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⁴⁾

그 밖에, 사마천은 인물의 말투를 의식적으로 모방하여 그들의 성격을 생동적으로 묘사하였다. 사마천은 〈秦始皇本紀〉중에서 尉繚와 侯生, 盧生の 말투를 빌려 진시황제 영정에 대해 세부묘사를 전개함으로 독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었다.

12) 《淳南遺老集》卷十五(上海, 商務印書館, 1929年版), p.81.

13) 《淳南遺老集》卷十五, p.82.

14) 季鎮淮, 〈司馬遷是怎麼寫歷史人物的傳記的: 從“實錄”到典型化〉, p.74.

위료가 말했다. “진왕이란 위인은 그 상이 우뚝 선 콧날, 가로 길게 찢어진 눈, 맹금(猛禽) 같은 가슴, 시랑(豺狼) 같이 쉰 목소리, 은혜를 베푸는데 인색하고 호랑이와 이리 같은 흉악한 마음을 가슴에 감추고 있으면서 자기가 곤궁할 때는 밑의 사람일지라도 몸을 굽히나 일단 자기의 뜻을 얻게 되면 쉽게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 (繚曰: 秦王爲人, 蜂準, 長目, 鷲鳥膺, 豺聲. 少恩而虎狼心, 居約易出人下; 得志亦輕食人.)¹⁵⁾

후생(侯生)과 노생(盧生)이 만나 서로 상의하였다. “시황이란 위인은 천성이 포악하고 이리의 심성에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위인입니다. 지금 자신은 제후의 신분에서 일어나 천하를 병합하여 자기의 뜻을 얻었다고 생각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일을 행하면서 고금을 통하여 자기에 미치는 자가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侯生、盧生相與謀曰: “始皇爲人, 天性剛戾自用. 起諸侯, 并天下, 意得欲從, 以爲自古莫及己.”)¹⁶⁾

이처럼 사마천의 《사기》 인물전기는 인물의 성격을 묘사함에 있어 마치 속기 혹은 영상물 등 기록물들이 똑같은 말투와 경직되고 딱딱한 언어를 사용하여 공식화된 개념화된 인물의 성격을 그린 것과는 달리, 개성화된 구어와 말투 그리고 백화에 가까운 문언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였으며 좀 더 생동감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주었다.

네 번째는 “發憤著書”의 정신을 발휘해 《사기》인물전기의 서정성을 중요시 했다는 것이다. 사마천이 발휘한 “발분저서”의 정신에 대해서는 일찍이 한나라 때부터 이미 언급되어왔다. 반고는 그의 저서 《漢書·敘傳下》에서 “오호 사마천, 죄에 연루되어 형벌을 받는다. 옥에 갇혀 분을 발하니(發憤) 그것이 바로 생각과 정신이다. 성현들의 말씀을 서로 뒤섞어 보니 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經이다. 一家를 엮어 그 大綱을 밝게 했다.(烏呼史遷, 熏胥以刑, 幽而發憤, 乃思乃精, 錯綜群言, 古今是經, 勒成一家, 大略孔明.”¹⁷⁾라고 하였고, 葛洪은 《西京雜記·司馬良史》에서 “사마천은 발

15) 《史記》卷六 <秦始皇本紀>.

16) 《史記》卷六 <秦始皇本紀>.

분저서하여 《사기》 130편을 지었는데, 선달은 사마천을 두고 사관이 될 만한 좋은 자질을 갖춘 자라.(司馬遷發憤作《史記》百三十篇, 先達稱爲良史之才.)¹⁸⁾하였다. 그들은 사마천이 《사기》를 창작한 이유는 마음 속 깊이 파고든 억울함과 분노를 토로하기 위함이라고 여겼다. 그렇다면 사마천의 억울함과 분노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마천 자신이 한 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太史公自序>에서 “사서를 논하기 시작해서 7년째 되는 해에 태사공 나는 이릉(李陵)의 화를 당하여 포승줄에 묶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감옥에 갇힌 태사공은 깊이 탄식하며 말했다. 어째서 이것이 나의 죄란 말인가! 어째서 이것이 나의 죄란 말인가! 몸은 망가져 이젠 쓸모가 없게 되었구나!(七年而太史公遭李陵之禍, 幽於縲紲. 乃喟然而嘆曰: 是余之罪也夫! 是余之罪也夫! 身毀不用矣.)”¹⁹⁾라고 하였다. 이릉은 한나라 장군으로, 天漢二年(기원전 99년) 5천명의 병사를 이끌고 전장에 나갔으나 흉노의 대군을 만나 참패하고 포로가 되었다. 그때 이릉의 패배에 대해 어느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으며, 변호조차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마천은 다른 신료들과는 달랐다. 한 무제가 이 문제에 대해 사마천의 견해를 물었을 때, 그는 이릉의 평상시 사람 됨됨이와 이번 전쟁에서 고군분투한 이릉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지나친 책망은 부당하다고 건의하였다. 이 말을 들은 한 무제는 크게 화를 내며 사마천이 의식적으로 자신을 공격한다고 여겨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기원전 98년 그는 참혹한 궁형(腐刑)에 처해졌다. 이렇게 8년을 견딘 사마천은 친구인 任安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그 유명한 <報任安書>이다.

문왕은 갇힌 몸이 되어 《주역》을 연역하였고 중니(仲尼)는 곤란한 처지를 당하여 《춘추》를 지었습니다. 굴원(屈原)은 쫓겨 가서 《이소》를

17) 《漢書》卷一百下.

18) 《西京雜記校註》卷四(上海古籍出版社, 1991年5月版), p.171.

19) 《史記》卷一百三十.

섰고 좌구(左丘)는 실명한 뒤에 《국어》를 지었습니다. 손자(孫子)는 발이 잘리고 《병법》을 편찬하였고 여불위(呂不韋)는 촉(蜀)에 유배되어 세상에 《여씨춘추》를 전했으며, 한비자는 감옥에 갇혀 《세난》, 《고분》을 저술하였다. 《시경》 300편은 대개 성현이 발분(發憤)하여 지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가슴 속에 맺힌 바가 있어 그 하고자하는 바를 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나간 일을 서술하여 후세의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알아줄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저는 진실로 이 책을 저술하여 명산(名山)에 보관하였다가 내 뜻을 알아줄 사람에게 전하여 촌락, 도시에 유통되게 한다면 이전에 받은 치욕에 대한 질책을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니 비록 만 번이나 주륙을 당한다 해도 어찌 후회가 있겠습니까?(蓋文王拘而演《周易》; 仲尼厄而作《春秋》; 屈原放逐, 乃賦《離騷》; 左丘失明, 厥有《國語》; 孫子臏脚, 《兵法》修列; 不韋遷蜀, 世傳《呂覽》; 韓非囚秦, 《說難》、《孤憤》。《詩》三百篇, 大抵聖賢發憤之所爲作也。此人皆意有所鬱結, 不得通其道, 故述往事, 思來者……僕誠以著此書, 藏諸名山, 傳之其人, 通邑大都; 則僕償前辱之責, 雖萬被戮, 豈有悔哉!)²⁰⁾

사마천은 이 편지에서 공자인 중니와 굴원 등 성현들의 모범사례를 자신에 빗대어 왜 《사기》를 쓰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사마천은 고대의 성현들 모두 다 불행한 일을 당해 마음 속 깊이 파고든 고통과 분노가 있으며, 이러한 고통과 분노는 창작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발분저서”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릉의 화와 궁형을 당한 이후 《사기》를 빌려 이전에 참고 견뎠던 모욕과 치욕을 보상함과 동시에 《사기》인물전기중의 인물들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의탁하려고(“抒情”, “寄憤”) 하였다.

《사기》인물전기 가운데 이러한 서정성이 담긴 내용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項羽本紀>, <伯夷列傳>, <屈原列傳>, <游俠列傳>, <刺客列傳> 등이 그러하다. 흥미로운 것은 사마천과 마찬가지로 불행한 일을 당한 인물들이 꽤 많다는 것이다. 112편의 《사기》인물전기 가운데(<太史公自序>포함) 57편이 비극적인 인물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삼았으며,

20) 《文選》第41卷(台北: 藝文印書館, 民國78年1月版), pp.587-592.

그 외에 20편에 가까운 전기가 비록 비극적인 인물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정하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비극적인 인물을 다루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²¹⁾ 이는 분명히 그의 “발분저서”의 정신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인물전기의 “實錄精神”과 “不虛美, 不隱惡(아름다움은 꾸미지 않고, 악한 것은 숨기지 않는다.)”의 창작태도를 견지했다는 것이다. 사마천의 “실록정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그의 진리추구(求實)정신은 전대의 사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 있다. 그는 고증을 거치지 않은 어떠한 사료도 쉽게 남용하지 않았고 반드시 “考信”의 과정을 거쳤다.²²⁾ 그래서 그는 공자가 산정한 것으로 알려진 《詩》, 《書》, 《禮》, 《樂》, 《易》, 《春秋》 등 선진시기의 전적을 사료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고, 인물전기의 역사적 자료를 취사선택하였다.²³⁾ 만약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인용하지 않았으며, 古代의 일시(逸詩/軼詩) 등 문학작품에 반영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 분석을 진행하고 의문점을 제시하였다.²⁴⁾ 다음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한 결과를 중시하였다. 사마천은 《사기》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전대의 사료에 대해 종합적인 비교와 분석 외에 현장조사와 인물탐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토대로 기존의 역사자료를 수정하거나 보충하였다.²⁵⁾ 예를 들어, <孟嘗君列傳>: “내가 설읍에 가보았는데, 그 마을 민풍을 보니 대부분은 폭압적인 자제들로, 추와 노 지역과 달랐다. 그 이유를 물으니, 말하기를 ‘맹상군이 천하의 험객과 계명구도한 무리들을 데리고 설읍에 들어왔는데, 대략 6만여 세대나 된다.’ 맹상군이 손님(賓客)을 좋아하여 스스

21) 韓兆琦主編, 《中國傳記文學史》河北教育出版社, 1992年, p.81.

22) 《史記》卷六十一: “考信於六藝”.

23) 李祥年, 《漢魏六朝傳記文學史稿》,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5年, p.41.

24) 王運熙等主編, 《中國文學批評通史·壹》, 上海古籍出版社, 1994年, p.476.

25) 李祥年, 《漢魏六朝傳記文學史稿》, p.42.

로 즐거워하였다고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 명성이 거짓이 아니었다.(吾嘗過薛, 其俗閭里率多暴桀子弟, 與鄒、魯殊. 問其故, 曰: ‘孟嘗君招致天下任俠、奸人入薛中蓋六萬餘家矣.’ 世之傳孟嘗君好客自喜, 名不虛矣.)”²⁶⁾ 맹상군의 명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설읍을 방문한 사마천의 實錄精神이 잔잔히 깔려있다.

이러한 사마천의 “실록정신”은 “불허미, 불은악”의 창작 태도에서 더욱 극명하게 두드러진다. 예컨대, <항우본기> 중에서 사마천은 복잡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 項羽에 대하여 비평할 곳은 비평하고 칭송할 곳은 칭송하였는데, 이는 “불허미, 불은악”의 창작태도를 실현한 것으로 복잡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의 진면목을 파헤친 것이다. 그는 사관은 반드시 實事求是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원칙에 따라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한 고대의 사관을 특히 더 칭송하였다. <晉世家>에서 孔子의 입을 빌려 “동호는 사관이 될 만한 좋은 자질을 갖춘 자로 그의 글에는 숨김이 없다.(董狐, 古之良史也, 書法不隱.)”²⁷⁾라고 하여 실사구시의 정신을 견지한 정직한 사관 동호를 칭송하였고, <齊太公世家>에서는 폭력에 굴하지 않고 직필하다가 희생당한 齊 太史 兄弟를 칭송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魏나라 학자 王肅은 明帝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왕숙이 대답하기를 “사마천은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 아름다움은 꾸미지 않고 악한 것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향과 양웅은 그가 사건의 경과를 잘 서술하고 사관이 될 만한 좋은 자질을 갖추었다고 탄복하였으며 이를 실록이라 하였습니다.”(對曰: “司馬遷記事, 不虛美, 不隱惡. 劉向·揚雄服其善叙事, 有良史之才, 謂之實錄.”)²⁸⁾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을 통해서 보더라도 <<사기>>인물전기에 대한 왕

26) <<史記>>卷七十五.

27) <<史記>>卷三十九.

28) <<三國志·魏書十三·鍾繇華歆王朗傳>>卷十三(台北: 鼎文書局, 民國67年11月版).

속의 평가가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史傳散文의 變異過程

1. 班固의 《漢書》

한나라 때 《사기》이외에 또 한 권의 인물전기가 탄생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東漢 반고가 지은 《한서》이다. 이 책은 총 100편으로, 그 가운데 본기 12편, 열전 70편이 모두 다 인물전기이다. 漢 高祖 元年(기원전 206년)부터 王莽 地皇 四年(서기 23년)까지 총 229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반고(서기 32~92년)는 자가 孟堅이며, 扶風安陵(현재 陝西 咸陽市 동쪽)사람으로, 문학과 사학적 소양이 가득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²⁹⁾ 반고가 《한서》를 창작한 동기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아버지의 유업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마천과 마찬가지로 반고도 역시 그의 아버지 班彪의 유지를 받들어 《한서》를 지은 것으로, 아버지 반표의 기초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아버지 반표가 죽자, 고향으로 돌아왔다. 반고는 아버지가 편찬하던 전대사가 아직 상세하지 않다고 여겨 생각을 갖고 뒤아 그 유업을 완성하려 했다.(父彪卒(주: 서기 54년), 歸鄉里. 固以彪所續前史未詳, 乃潛精研思, 欲就其業.”³⁰⁾ 둘째는 사마천과 역사비평의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반고는 아버지 반표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班氏 父子 두 사람 모두 사마천과 그의 《사기》를 칭송함과 동시에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그의 시비판단은 성인과는 사뭇 달라서 대도(大道)를 논할 경우 황노를 앞세우고 육경을 뒤로 돌렸으며 유협을 서술할 경우에 처사를 물리치고 간악한 무리를 앞세웠으며, 화식

29) 李祥年, 《漢魏六朝傳記文學史稿》, p.70.

30) 《後漢書·班彪列傳》卷四十上(台北: 鼎文書局, 民國67年11月三版).

(貨殖)을 말할 경우에 세리(勢利)를 숭상하고 빈천을 수치로 여겼으니 이것은 그 책의 폐단이다.(又其是非頗謬於聖人, 論大道則先黃老而後六經, 序游俠則退處士而進姦雄, 述貨殖則崇勢利而羞貧賤, 此其所蔽也.)³¹⁾ 班氏父子는 전통 유가사상의 이성적 규범을 근거로 하여 문학과 사학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사기》를 가리켜 “논의가 천박하여 진실하지 못하다.(論議淺而不篤)”³²⁾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마천이 유가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윤리도덕규범을 어겼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고는 국사를 다시 쓰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와 달리, 《한서》의 창작과정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하지만 반고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한서》를 짓고 있을 때, “개인이 국사를 바꾼다(私改作國史)”라는 모함을 당했다. 이에 漢 明帝는 곧바로 “군에 조서를 내려 반고를 체포해 경성의 감옥에 가두고 그의 글을 모두 거둬들였다.(有詔下郡, 收固繫京兆獄, 盡取其字書.)” 나중에 그의 동생 班超가 명제에게 상서를 올려 반고의 저작 동기를 알리자, 명제는 반고의 저작을 보고 “기특하게(甚奇之)”여겨, 반고를 풀어주고 蘭臺令史에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이전의 글을 완성(終成前所著書)”하도록 하였다.³³⁾ 이처럼 반고는 황제의 지원을 받아가며 《한서》를 완성한 것이다. 물론 《한서》의 八表와 十志는 和帝의 명을 받은 반고의 여동생 반소와 반소의 제자 馬續이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것이다. 이처럼 《한서》는 창작과정에서 《사기》와 달리 조정의 지지와 협조를 받아 완성되었다.

이러한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완성된 《한서》인물전기는 아주 농후한 유가적 색채를 띠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서》는 내용과 사상 면에서 《사기》인물전기와 다른 특징을 담고 있다. 반고는 서한의 황권과 서한

31) 《漢書·司馬遷傳》卷六十二.

32) 班彪, <史記論>, 《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全後漢文卷23(台北: 世界書局, 民國52年5月2版).

33) 이 일은 永平五年(서기62年)에 발생한 사건임. 《後漢書·班梁列傳》卷四十七: “永平五年, 兄固被詔詣校書郎.”

왕조의 통일대업을 칭송하거나 보호하였으며, 애국사상을 가진 인물들과 통치자를 위해 탁월한 공로를 세운 영웅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³⁴⁾ 두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다. 하나는 劉邦에 관한 기록이고, 두 번째는 蘇武에 관한 기록이다. 먼저, 서한 제국을 창건한 유방에 대해, 사마천은 그렇다할 칭송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해 조롱과 풍자와 비평을 가했으며, 심지어는 유방을 겁쟁이 이기주의자, 걸으론 활달하나 속으론 잔인한 인간으로 비유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남의 허점을 이용해 공로를 세우려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은근히 그를 비판하였다. 하지만 반고는 유방을 唐 堯임금과 연결시켜 그의 建國은 “한이 요의 운을 계승한 것(漢承堯運)”이며 “요의 위업을 모으는 것(纂堯之緒)”이라고 평가하고, “원래 한 고조는 문장수업을 받지 않았으나 본성이 총명하고 지략이 뛰어나며 남의 말을 잘 받아들였으며 친화력도 뛰어나 관문을 지키는 병사들을 만나면 옛 친구를 만나듯 하였다. 처음에 민심을 따라 법삼장을 지었다.(初, 高祖不脩文學, 而性明達, 好謀, 能聽, 自監門戍卒, 見之如舊. 初順民心作三章之約…….)”³⁵⁾라고 칭송하였다. “백가를 배척하고, 유가만을 숭상(罷黜百家, 獨尊儒術)”하는 시대에 황제의 지원을 받았던 일개 사관 반고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한 제국과 그 황권에 대한 칭송과 옹호는 아마도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 《사기》인물전기와 비교해 볼 때, 《한서》인물전기는 한나라에 공로가 있는 인물을 더욱 중시하였다. 예컨대 <蘇武傳>, <衛青霍去病傳>, <趙充國傳>, <陳湯傳> 등이 그렇다. 반고는 전통적인 유가사상에 근거해 동한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인물들의 “愛國忠君”을 칭송하였다. 이러한 점은 후대 사전산문의 문학적 기능을 다소 약화시킨 결과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애국과 충군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융합시켜 한 통치자를 위해 가신들을 훈련시키고 동시에 이들에게 애국주의자라는 美名을 부여하여 통치자의 권력을 옹호하려 하였

34) 韓兆琦主編, 《中國傳記文學史》, p.113-121.

35) 《漢書·高帝紀》卷一下.

기 때문이다.³⁶⁾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의 통치자들은 “애국충군”사상이 다소 결여된 사마천을 비판하였다.

한 명제가 말하길: “사마천은 사기를 지어 일가의 말을 이루고 후세에 이름을 알렸으나, 그가 형벌을 받은 원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은밀한 문사로 당대를 풍자하고 비난하였으니 의인이 아니다.”(漢明帝說: “司馬遷著書, 成一家之言, 揚名後世, 至以身陷刑之故, 反微文刺譏, 貶損當世, 非誼士也.”)³⁷⁾

위 명제가 또 묻기를: “사마천이 형벌을 받은 원인은 험뜯고 비난하는 마음을 품고 《사기》를 지으면서 한 무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하여 사람을 격분케 한 것이 아닌가?”(又帝問: “司馬遷以受刑之故, 內懷隱切, 著《史記》非貶孝武, 令人切齒.”)³⁸⁾

《한서》 인물전기가 《사기》를 초월할만한 한 가지의 특색이 있다. 《한서》는 비교적 원시사료의 보존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비교적 방대한 문헌과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이 점은 《사기》가 따라갈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范曄는 《한서》와 《사기》를 비교한 후 “사마천의 문장은 솔직하고 간략하며, 반고의 문장은 상세하고 구체적이다.(遷文直而事覈, 固文瞻而事詳.)”³⁹⁾라고 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한서》인물전기의 예는 아주 많다. <賈誼傳>은 <陳政書疏(治安策)>, <請封建子弟疏>, <諫立淮南諸子疏> 등 3편의 중요한 문헌을 보충하였으며, <晁錯傳>은 <論皇太子應知術數書>, <言兵事書>, <言守邊備塞勸農力本書>, <言募民相徙以實塞下書> 등 중요한 논문과 文帝의 질문에 대답한 對策 등을 보충하였으며, <揚雄傳>은 <反離騷賦>, <甘泉賦>, <河東賦>, <羽獵賦> 등 여러 賦작품과 《法言》의 序目を 수록하였으며, <王莽傳>은 왕망의 書奏와 군신들이 왕망을 치켜세우는 문장 등을 수록하였

36) 韓兆琦主編, 《中國傳記文學史》, p.121.

37) 班固, <典引>, 《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全後漢文卷二十六.

38) 《三國志·魏書十三·鍾繇華歆王朗傳》卷十三.

39) 《後漢書·班彪列傳》卷四十下.

다.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서》에서 보여준 문헌사료에 대한 수집은 인물전기의 역사적 가치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물 전기에 대한 역사인식을 향상시켰다고 말할 수 있지만, 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도한 원시사료와 송덕으로 일관된 문자는 진솔하고 생동감 있는 인물묘사를 보장할 수 없으며,⁴⁰⁾ 자칫 잘못하면 인물전기를 지나치게 번잡하고 난잡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2. 魏晉南北朝의 史傳

서기 220년 조비가 한을 대신해 위나라를 건국한 이후 삼국의 대립과 서진의 통일 그리고 남북조의 대치를 거쳐 서기 589년 隋文帝가 陳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 약 370년간을 역사상 魏晉南北朝 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의 정치상황을 보면 서진이 잠시 동안 중국을 통일한 것 외에는 장기간 분열과 혼란가운데 처해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각 조대의 통치자들은 “역사적 본보기(以史爲鑑)”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오나라의 제왕 손권은 “통치이래로 三史(주: 《史記》, 《漢書》, 《東觀漢記》)와 여러 제자백가들의 병서를 살펴보았는데, 큰 이로움이 있다.(至統事以來, 省三史, 諸家兵書, 自以爲大有所益.)”⁴¹⁾라고 생각하였고, 촉한의 승상 諸葛亮은 《論前漢事》를 지어 전한의 흥성과 후한의 쇠퇴원인을 총괄하여 역사적 교훈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위나라와 오나라 그리고 동진이래 각 조대는 모두 史官을 두어 역사를 기록하였다.⁴²⁾ 《史通·史官建置》: “중조(위나라와 서진)의 화교·진수·육기·속석, 강좌(동진)의 왕은·우예·간보·손성, 송의 서원·소보생, 양의 심약·배자야 등 이들은 모두 뛰어난 사관들이며, 잘 골라 뽑은 저작들이다.(若中朝之華嶠·陳壽·陸機·束皙, 江左之王隱·虞預·干寶·

40) 李祥年, 《漢魏六朝傳記文學史稿》, pp.74-76.

41) 《三國志·吳書九·周瑜魯肅呂蒙傳》卷五四注引《江表傳》.

42) 李祥年, 《漢魏六朝傳記文學史稿》, p90.

孫盛, 宋之徐爰·蘇寶生, 梁之沈約·裴子野, 斯並史官之尤美, 著作之妙選也。”⁴³⁾ 심지어 어떠한 황제들은 친히 붓을 들어 史傳을 지었다. 《宋書》의 <臧質>·<魯爽>·<王僧達> 등 三傳이 바로 그 예인데, 이들은 모두 宋 孝武帝 劉駿이 직접 지은 사전이다.⁴⁴⁾ 이처럼 魏晉南北朝 시기의 통치자들은 사전 창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통치자들은 왜 사관 설치와 사전의 창작을 중요시 여겼을까? 이와 관련된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晉書·干寶傳》,

중흥 초기에 사관을 아직 두지 않았기에 중서감 왕도가 상소(<請建立國史疏>)하여 말하였다. “제왕의 업적은 글로 남기지 않을 수 없으니 법령으로 만들어 영원토록 후세에 전해야한다. 선황제는 사해(영토)를 확장하고, 무황제는 위 공제에게 제위를 물려받아 지덕과 공훈을 좇아 성군계 올리나 기와 전이 왕부(황궁)에 보존되지 않아 덕음이 널리 울려 퍼지지 못합니다. 성명하신 폐하께서 중흥의 때에 국사를 건립하고 제왕의 紀를 편찬하여 위로는 조종의 공덕을 알리고 아래로는 충신의 공훈을 기록하기 위해 반드시 실록정신에 입각하여 후대의 기준으로 삼아 백성들의 소망을 따르고 사람과 귀신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이는 실로 아름다운 평화이자 왕업의 넓은 터전입니다.”(中興草創, 未置史官, 中書監王導上疏曰: “夫帝王之跡, 莫不必書, 著爲令典, 垂之無窮. 宣皇帝廓定四海, 武皇帝受禪於魏, 至德大勳, 等蹤上聖, 而紀傳不存於王府, 德音未被乎管絃. 陛下聖明, 當中興之盛, 宜建立國史, 撰集帝紀, 上敷祖宗之烈, 下紀佐命之勳, 務以實錄, 爲後代之準, 厭率土之望, 悅人神之心, 斯誠雍熙之至美, 王者之弘基也.”)⁴⁵⁾

여기서 우리는 통치자들이 사관을 설치하고 사전을 저술토록 한 원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통치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바로 “至德大勳”의 宣揚이 아닌가싶다. 이러한 통치자의 의지가 사전산문 창작

43) 唐 劉知幾著·清 浦起龍釋, 《史通通釋》(台北: 華世出版社, 民國70年11月版), p.357.

44) 韓兆琦主編, 《中國傳記文學史》, pp.137-139.

45) 《晉書·干寶傳》卷八十二(台北: 鼎文書局, 民國68年2月版).

에 영향을 미쳐 그 취지가 다소 퇴색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만약, 문인들이 이러한(사전산문의 전통이 이미 변질되어버린) 사전산문의 저술 목적을 위반하고 통치자 혹은 권세가들의 심기를 건드릴 경우, 그들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멸족당할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孫盛은 동진의 저명한 사학자인데, 어느 날 동진의 권력가이자 대장군인 桓溫의 실정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조정에 올렸다. 이것을 본 환온은 손성의 아들에게 화를 내며 “枋頭는 여건이 원래 불리하였는데, 어찌 당신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 같다고 하겠소! 만약 이 史實을 세상에 알린다면 이는 당연히 당신 집안의 문을 닫는 일이 될 것이요.(枋頭誠爲失利, 何至乃如尊君所說! 若此史遂行, 自是關君門戶事.)”⁴⁶⁾라고 말하고 “그것을 삭제(刪改之)” 하도록 요구하였다.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 손성은 “나중에 공포에 떨던 여러 아들들이 이마를 땅에 대고 울며 딸린 식솔들을 생각해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끝내 화를 내며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아들들이 몰래 그것을 고쳤다.(至此, 諸子乃共號泣稽顙, 請爲百口切計. 盛大怒. 諸子遂爾改之.” 저명한 사학자 손성이 당한 사건을 통해보면, 사전산문의 창작에 대한 통치자와 권세가들의 통제와 간섭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전산문 창작에 대한 통치자와 권세가들의 통제와 간섭 때문에 위진남북조 시기의 사전산문은 官撰성격이 아주 농후하였다. 이 시기 때 지어진 사전은 《三國志》·《後漢書》·《宋書》·《南齊書》와 《魏書》 등 총 다섯 권이며, 이 가운데 《後漢書》를 제외한 나머지 사전들은 모두 사관 혹은 황족이 지은 것이다. 《삼국지》의 작가 陳壽는 蜀漢시기 觀閣令史를 지냈으며, 西晉시기에는 著作郎과 領本郡中正을 역임했는데, 이때 바로 《삼국지》를 지었다. 《송서》는 沈約이 齊武帝 永明五年(487년) 봄에 황제의 명을 받들어 지어진 것이며, 梁初에 지어진 《남제서》는 저자가 蕭子顯으로 齊高帝 蕭道成의 손자이자 豫章王 蕭嶷의 아들이고, 《위서》

46) 《晉書·孫盛傳》卷八十二.

는 魏收가 北齊 天保二年(551年) 황제의 명을 받들어 지은 것이다. 그 외에, 그들은 통치자의 정치적 역량을 확대시키기 위해 本朝에 커다란 공적을 세운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 칭송과 포장을 아끼지 않았다. 예컨대, 《三國志·關羽傳》은 관우를 “중국에서 위엄을 떨친(威震華夏)” 장군이라고 추켜세웠으며, 《三國志·張飛傳》은 장비를 “만인을 대적할 만한 지략과 용맹이 있는 사람(萬人之敵)”이라고 칭했으며, 《三國志·諸葛亮傳》은 제갈량을 “천하의 기재(天下奇才)”라고 칭송하였다. 한편 《後漢書》는 “中興二十八將”으로 알려진 鄧禹·吳漢·賈復·耿弇 등의 전기와 <馬援傳>·<班超傳> 등을 수록하였다. 또한 《宋書》의 여러 제왕들의 본기 중에서 편폭이 가장 긴 <武帝本紀>는 전반부에서 의식적으로 宋 武帝 劉裕의 여러 공적을 열거했으며 그의 뛰어난 업적과 鴻德을 적극 칭송함으로써 동진을 대신해 나라를 세운 정당성을 마련해 주었으며, 후반부에서는 동진과 劉宋의 교체시기에 이르러 晉 武帝가 스스로 선양의 뜻을 밝혔으며, 유유(宋 武帝)가 여러 차례 사양의 뜻을 밝히고 심지어는 “왕(유유)이 표를 올려 사양하였으나 동진 공제는 남아왕자를 이미 양보하였고 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王奉表陳讓, 晉帝已遜瑯琊王第, 表不獲通.)”⁴⁷⁾라고 대서특필하여 송의 건국을 정당화하였다. 게다가 많은 백성들의 여망이니 군신들의 끝없는 간언이니 하며 동진과 유송의 교체시기를 마치 요임금과 순임금이 선양을 통해 제위를 물려준 것과 같은 모양으로 묘사하여 어떠한 무력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고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⁴⁸⁾

물론 위진남북조 시기에, 사전산문의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작품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범엽의 《後漢書·逸民傳》은 《사기》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隱士들과 그들의 隱逸生活에 대해 기록하였으며, <列女傳>에서는 현명하고 정순한 부녀자들을 위해 입전했는데, 이는 正史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인물전기이다. 이 두 종류의 전기들은 前시대

47) 《宋書·武帝》本紀第二(台北: 鼎文書局, 民國68年2月版).

48) 李祥年, 《漢魏六朝傳記文學史稿》, p.95, 105, 119.

에서는 全無한 것으로 후대의 사전들은 모두 《後漢書》의 전통을 따라 <隱逸傳>과 <列女傳>을 설치해 隱士와 列女 등 인물들의 생평을 기록하였다.

3. 唐代의 史傳

동한 말기부터 시작된 중국정치의 혼란과 분열은 581년 隋文帝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마침표를 찍게 되었으며, 30여년이 흐른 다음 수나라는 농민봉기가 일어나 결국 붕괴되었고, 李淵(高祖)이 세운 唐帝國이 수를 대신하게 되었다. 唐朝가 건국될 초기(武德四年, 서기 621년) 秘書丞 令狐德棻은 “근대이후 정사가 없었다.(近代以來, 多無正史.)”⁴⁹⁾라고 하며 梁·陳·齊·周·隋나라의 역사를 편찬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 이듬해 고조는 조서를 내려 魏·周·隋·梁·齊·陳 등 6국의 역사를 편찬하도록 하였으나 “몇 년이 지나도 완성되지 않자 중지(歷數年, 竟不能就而罷)”⁵⁰⁾라고 명했다. 그리고 貞觀三年(629년)에 太宗이 “다시 칙령을 내려 사서 편찬(復敕修撰)”을 명하면서부터 高宗 顯慶四年(659년)까지 만 3년이라는 시간동안 前代史를 편찬할 史館을 설립하여 총 여덟 권의 기전체 “正史”를 완성하였다.(《梁書》·《陳書》·《北齊書》·《周書》·《隋書》(《五代史志》포함)·《晉書》·《南史》·《北史》) 이들은 모두 “官撰史傳”⁵⁰⁾이며, 그 가운데 《周書》·《隋書》·《晉書》 등 세 권은 두 명이상의 사관이 집단적으로 편찬한 사전이다. 이를 통해 당시에 편찬된 사전의 관찰성격이 아주 농후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통치자의 통제범위에 이미 편입되었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49) 《舊唐書·令狐德棻傳》卷七十三(台北: 鼎文書局, 民國68年2月版).

50) 李延壽는 《南史》와 《北史》를 편찬하는 과정 중 조정의 도움을 받았음. 또한 책이 완성된 후 통치자의 검열과 허가를 거쳐 공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저술이라고 할지라도 관찰성격의 史傳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王樹民, 《史部要籍解題》(北京: 中華書局, 1995年5月三次印刷), p.85.

조정에서 사전편찬과 집체편집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唐代의 사전편찬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제약에 받게 되었다. 전주의 선택은 물론 인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흠정(欽定)의 색채를 띠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작가 개인의 풍격과 성격이 다소 퇴색되기 마련이었다. 뿐만 아니라, 唐太宗李世民 같은 사람은 “짐이 전대의 사서를 매번 보건데 선을 선양하고 악을 미워하니 장래에 거울로 삼을 수 있다.(朕每觀前代史書, 彰善癉惡, 足爲將來規誡.)”⁵¹⁾라고 하여 망국의 역사교훈을 중요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唐代의 사전은 다음과 같은 사상적 경향을 나타내었다. 첫째, 통일 과업을 달성하는 과정 중에 제왕 및 관료와 장군들이 행한 역할을 관찰한다. 둘째 망국의 역사적 교훈을 밝힘으로서 치국에 도움을 제공하고, 후대에게 거울로 삼도록 한다. 셋째, 忠孝節義와 같은 윤리 도덕적 사상을 선전한다.⁵²⁾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산문은 이미 “일반 민중들의 이야기”나 “보통사람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졌으며, 의식적으로 통치자들의 주요관심사인 큰 사건이나 인물 그리고 통치자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교조 등에 도움이 될 만한 기록들만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전산문은 唐代에 이르러 통치자를 위한 어용역사 혹은 부용으로 전략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이할 만한 것은 唐房玄齡 등 21인이 집단 편찬한 《晉書》가 기타 史傳과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진서》의 인물전기에는 《世說新語》를 포함한 晉代의 각종 필기소설(《語林》·《搜神記》등) 중의 이야기, 예컨대 石崇이 王愷와 재산을 비교하여 다투던 이야기(<石崇列傳>), 王羲之의 결혼이야기(<王羲之列傳>), 周處가 三害를 제거한 이야기(<周處列傳>) 등 소설잡기가 대량 수록되어있다.⁵³⁾ 이처럼 소설적 색채가 농후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진서》의 인물전기는 그 내용이 생동적이고 깊은 맛이 있지만, 사료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정리를

51) 唐吳兢, 《貞觀政要·論文史》(台北: 宏業書局, 民國75年12月再版), p.347.

52) 韓兆琦主編, 《中國傳記文學史》, pp.189-195.

53) 王樹民, 《史部要籍解題》(北京: 中華書局, 1995년5월), p.59.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잡한 구석이 적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황당하고 불경스러운 미신전설을 수록하였는데, 이들 귀신류와 인과응보류에 해당하는 미신전설들은 모두 작가의 고증과 입증을 거치지 않은 것들이다.⁵⁴⁾ 문학적인 가치를 따져보자면 이들 인물전기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겠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진서》는 사마천의 《사기》 인물전기가 수립해 놓은 실록정신의 전통을 쇠퇴시켰다고 할 수 있다.

IV. 나오는 글

이상에서 우리는 先秦에서 唐代에 이르는 사전산문의 전통수립과 변이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전산문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천의 《사기》는 선진시기 일부 사서에 나타난 인물묘사 표현기법을 수용하여 자신의 문학적 재능과 시대적 배경을 융합하여 사전산문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사기》가 수립한 사전산문의 전통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뿐만 아니라 사회를 대표할 만한 인물을 선정해 인물전기의 주인공(전주)으로 삼아 소재를 다양화 하였다. 둘째, 각종 인물 묘사 기법을 활용하여 전형적인 인물의 형상을 묘사함과 동시에 인물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개성이 풍부한 구어와 말투를 사용하여 사전산문의 고사성을 극대화 시켰다. 넷째, “발분저서”의 정신을 발휘해 사전산문의 서정성을 제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물전기의 “실록정신”과 “불허미, 불은악”의 창작태도를 견지하여 사전산문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였다. 이를 다시 간략히 정리하면, 사마천은 《사기》를 통해 문학과 역사성을 동시에 겸비한 사전산문의 표본을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역대 학자들은 《사기》를 사전산문의 전범이라 하고, 사마천을 사전산문의 대표라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수립된 사전산문의 전통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이과정을 거

54) 楊正潤, 《傳記文學史綱》(江蘇教育出版社, 1994年11月), p.175.

쳐 다소 퇴색되어 갔다. 우선 동한시기를 거쳐 唐代에 이르는 동안 사전 산문은 점점 관찬성격을 띠게 되었고, 심지어는 통치자의 필요에 의해서 통제와 간섭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사전산문이 갖고 있는 “발분저서”의 정신과 “실록정신” 등이 왜곡되었고, 작가 개인의 역량이 발휘 될 수 있는 인물묘사 표현기법 또한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때로는 고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진서》에서 나타난 현상처럼 무잡하고 황당한 이야기가 사전산문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이쯤에 이르러 《사기》가 수립한 사전산문의 전통은 그 본뜻을 점점 잃어가게 되었다.

중국문학의 연구와 교학이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과거에 우리가 품고 있는 사고를 다소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 그동안 중국문학, 혹은 문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뛰쳐나와 타학문간의 융합 혹은 수용을 통해 중국문학을 이해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생물학적 현상과 문학이라는 주제를 완전히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시야를 넓힌다는 의미에서 타학문과의 융합과 수용을 통해 중국문학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 방안이 될 것이다.

<參考文獻>

- 《淳南遺老集》, 上海: 商務印書館, 1929年版.
- 《管錐編》, 香港: 中華書局, 1979年.
- 《舊唐書》, 台北: 鼎文書局, 民國68年2月版.
- 《文選》, 台北: 藝文印書館, 民國78年1月版.
- 《史記會注考證》, 瀧川太龜郎著, 台北: 天工書局, 1993年版.
- 《史通通釋》, 唐劉知幾著·清浦起龍釋, 台北: 華世出版社, 民國70年11月版.
- 《三國志》, 台北: 鼎文書局, 民國67年11月版.
- 《西京雜記校註》, 上海古籍出版社, 1991年5月版.
- 《宋書》, 台北: 鼎文書局, 民國68年2月版.

- 《戰國策》，台北：里仁書局，民國79年9月版。
- 《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台北：世界書局，民國52年5月2版。
- 《貞觀政要》，唐吳兢，台北：宏業書局，民國75年12月再版。
- 《晉書》，台北：鼎文書局，民國68年2月版。
- 《漢書》，台北：鼎文書局，民國68年2月二版。
- 《後漢書》，台北：鼎文書局，民國67年11月三版。
- 季鎮淮，〈司馬遷是怎寫么歷史人物的傳記的：從“實錄”到典型化〉，《中國古典散文研究論文集》，北京：人民文學出版社，1959年。
- 李祥年，《漢魏六朝傳記文學史稿》，上海：復旦大學出版社，1995年。
- 楊正潤，《傳記文學史綱》，江蘇教育出版社，1994年11月。
- 王樹民，《史部要籍解題》，北京：中華書局，1995年5月三次印刷。
- 王運熙等主編，《中國文學批評通史·壹》，上海古籍出版社，1994年。
- 韓兆琦主編，《中國傳記文學史》，河北教育出版社，1992年。

〈中文提要〉

《史記》人物傳記所奠定史傳散文的優良傳統有五：第一，重視為歷史上或社會上具有代表性的典型人物立傳；第二，運用各種人物描寫技巧，以塑造典型人物的形象。（《史記》所運用的人物描寫技巧大致有三：其一，通過細節描寫來刻畫人物形象。其二，使用對比的手法使得人物的性格與形象更加突出。其三，以人物的心理描寫凸顯出傳主的外在活動與內心世界。）；第三，運用個性化的口語與口吻，以提高傳記的故事性；第四、依“發憤著書”的精神，重視《史記》人物傳記的抒情性；第五，追求人物傳記的“實錄”精神，展現“不虛美，不隱惡”的創作理念。

《史記》所奠定史傳散文的優良傳統，經過漢魏六朝和唐代，漸漸呈現出衰退的跡象。《漢書》人物傳記帶有濃厚的儒家思想色彩，所以《漢書》在思想內容上表現了別於《史記》人物傳記的思想特點。班固歌頌並維護西漢皇權

及西漢王朝的統一興盛，且表彰一批具有愛國思想與對統治者做出卓越貢獻的英雄人物。

魏晉南北朝時期的統治者很重視史傳的編纂。經過著名的史學家孫盛所遭遇的一件事，我們可知統治者對史傳撰寫的控制與干涉多麼嚴重。由於統治者對史傳撰寫的干涉與控制，魏晉南北朝時期的史傳帶有濃厚的官修色彩。

由於官方主導史傳編寫以及集體編撰，唐朝的史傳不能不受到許多限制，無論是傳主的選擇，還是對人物的評價，都表現出欽定的色彩，缺少作者個人的風格特點。史傳已經不注重“一般民衆的故事”，“一般人物的生活”，而是刻意重視統治者所關心的大事件與人物，以及有助於統治者的政治利益的教條。

以上論述《史記》及其後的史傳散文的變遷情況。經過以上的論述，筆者可以做如下的總結：如果我們說，《史記》是兼有文學性與歷史性的人物傳記，《漢書》是歷史性較高的史傳；那麼，魏晉南北朝與唐朝的史傳，其文學性只在無意間“透露”出一些苗頭來，並且具有濃厚的官修色彩，因此很難稱之為“優秀的史傳散文”。

주제어 : 司馬遷, 史記, 班固, 漢書, 史傳, 史傳散文, 史傳文學